

## 칼뱅에 따른 신자의 “영광의 상태”(status gloriae)

김선권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 박사, 조직신학)

### I. 서론

칼뱅 신학은 종말론적이다. 안드레 비호플레는 “장 칼뱅은 그의 신학적 성찰의 많은 부분에 종말론적 성격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sup>1)</sup> 뵘에르 지젤은 “칼뱅의 전체 신학 안에서 종말론의 강조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sup>2)</sup> 종말론은 칼뱅 신학 깊숙이 뚫고 들어와 있다. “기독교인의 삶”,<sup>3)</sup> “세례”와 “성찬”,<sup>4)</sup> “신비적 연합”<sup>5)</sup>은 종말론적 강조 가운데 놓여 있다. 만일 우리가 “이신칭의”를 강조한 루터를 “신앙의 신학자”라고 과장해서 부른다면 종말론을 강조한

1) André Birmelé, 《L'Eschatologie. Les choses dernières et avant-dernières》, dans *Introduction à la théologie systématique* (Genève, Labor et Fides, 2008), 385.

2) Pierre Gisel, *Le Christ de Calvin* (Paris, Desclée, 1990), 30.

3) Calvin, *IRC* III. ix. 1-6.

4) 성례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속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한다. 따라서 세례와 성찬은 궁극적으로 종말론적 지평을 열어준다. “이러한 이유에서 성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세례는 우리에게 우리 미래 부활에 대한 보증(un seau)이며 (골2:12) 우리의 입으로 영적 은혜의 표식들을 취할 때, 성찬은 부활에 대한 동일한 신뢰로 우리를 초대한다.” Calvin, *IRC* III. xxv. 8.

5) Emile Doumergue, *Jean Calvin: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Vol. 4, *La pensée religieuse de Calvin* (Lausanne, Bridei & Cie, 1910), 343.

칼뱅을 “소망의 신학자”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sup>6)</sup>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에 이르기까지 성도는 그리스도의 역사적 현존과 부재의 변증법적 긴장 가운데서 그와 관계를 맺는다. 칼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든 그리스도의 구속의 적용 안에서든 초월과 내재, 현존과 부재의 역설을 강하게 강조했다. 그리스도의 현존과 부재의 변증법은 구속사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이 변증법적 긴장이 “오실 그리스도”로서 기독교의 “소망”(esperance)을 직접적으로 가져다 준다. 루터가 그의 종말론을 심판의 종말론으로 가르쳤다면, 칼뱅은 부활의 종말론으로 가르쳤다. 몸의 복된 부활은 그의 신학에서 강조된다.<sup>7)</sup> 영혼은 몸으로부터 구원받는데 아니라 몸과 함께 구원받는다.

논의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 몇 가지 질문을 한다. 칼뱅이 말하는 부활의 상태란 무엇인가? 그것의 방식은 어떤 것인가? 구속의 현재적 경륜 안에서 또한 그것의 완성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구원의 궁극적 상태, 하나님과의 궁극적 관계, 말하자면 “신비적 연합”(unio mystica)은 어떤 것인가? 영광의 상태는 은혜 아래서 사는 삶(윤리)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계속되는 논의를 통해 이 질문들에 응답할 것이다.

### 1. 그리스도의 현존과 부재의 변증법

옛 언약의 시대, 말하자면 구약 성경 시대에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아직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다. 단지 모든 옛 언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육체의 현존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다. 유대인에게서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기다림)만이 아직 육체로 오시지 않는 그리스도의 부재성의 간극을 메울 수 있었다.

6) H. 퀴스토르프, 『칼빈의 종말론』, 이희숙 옮김 (서울: 성광문화사, 1995), 17.

7) Jean Bosc, *L'office royal du Seigneur Jésus-Christ* (Genève: Labot et Fides, 1957), 90.

유대인들은 소망으로(par espérance)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구속주의 인격 안에서 연합이 행해질 때까지 항상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어 있었다.<sup>8)</sup>

율법 시대의 조상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없었으며 그들의 모든 믿음은 그의 오심에 의존하고 있었다.<sup>9)</sup>

그리스도는 곧 실현될 율법과 여러 의식들 안에서 상징(figures)과 그림자(ombres)를 통해 나타나셨으며 그를 기다리는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었다. 복음 이전 시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현존은 보류 상태에 놓여 있었다. 칼뱅이 『기독교강요』 4권 성례에 관한 부분을 다룰 때 이런 사실을 주장한다. “비록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성례 가운데서 그의 은혜와 자신의 현존을 느낄 수 있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가 육체로 계시되기까지는 이 성례는 부재로서 그를 상징했었다.”<sup>10)</sup>

그림자, 상징, 이미지의 시대인 옛 언약의 시대와 달리 새 언약의 시대에는 이들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제시된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실체를 드러내고 그것을 그림자에 결합시키는 것에 있었다. “복음은 율법이 약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확증하고 만족시켰으며 그림자에 실체를 제시했다... 율법 전체를 볼 때에 복음은 그 현현의 명확성에 대해서만 율법과 차이가 있을 뿐이다.”<sup>11)</sup>

그리스도의 역사적, 육체적 현존은 그림자에 실체를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현존은 공간 안에 제한됐다. 그리스도가 한 장소에 있을 때, 그는 다른 장소에 동시적으로 있을 수는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이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리스도의 현존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게 했다.

8) Calvin, *Sermon 10<sup>e</sup> sur l'épître aux Ephésiens*, CO 51, col. 365.

9) Calvin, *Le Commentaire sur l'épître à Tite* 3,4.

10) Calvin, *IRC* IV. xiv. 25.

11) Calvin, *IRC* II. ix. 4.

더욱이 그리스도의 육체적 현존을 경험했던 것이 필연적으로 그의 현존에 대한 신앙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그가 행했던 이적을 “눈으로” 보았으며 그가 전하였던 복음을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신앙은 역사적 현존으로서 그리스도를 만지고 보는 것에 관계되지만, 무조건적으로 동일시 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칼뱅은 감각의 경험이 아닌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을 강조했다. “감각의 경험은 신앙의 본질과 상반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신앙은 육신의 감각이나 이성에 결코 의존하지 않는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sup>12)</sup>

그리스도는 그의 현현을 육체로 나타나셨지만 승천을 통해서 그의 현현이 육체적 현현에 결코 제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던 믿음은 그의 승천 후에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환되어야 했다. “요한은 신앙의 능력과 본질을 이 간결한 정의로 이해했다. 즉 신앙은 어떤 부분도 지상에 시선을 멈추지 않고 인간의 감각에는 숨겨져 있는 것을 믿기 위해 하늘까지 꿰고 올라가는 것이다.”<sup>13)</sup> 같은 차원에서 독일 개혁신학자 몰트만(J. Moltmann)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 넘어가는 놀라운 전환을 주목했다. “오히려 문제는 보는 것에서 신앙으로 넘어감에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현현이 어느 날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사귀는 중단되지 않았던가? 최초의 공동체에 있어서 이 문제는 분명히 진지한 문제로 생각되었고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되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요20:29)”<sup>14)</sup>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현존은 초자연적 영향력을 가지게

12) Calvin, *Le Commentaire sur l'évangile de Jean* 20, 29.

13) Calvin, *Le Commentaire sur l'évangile de Jean* 20, 29.

14) 몰트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적 차원의 그리스도론』, 김규진, 김명용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322-3.

되었기 때문에 이 현존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까지 확장되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기록한다. 칼뱅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는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과 그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현존의 권세”(l'autorité de la présence)였다. 그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는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마치 그가 육체적으로 계시는 것처럼”(comme si) 그의 현존을 나타내셨다. 그리스도가 승천 후에 성령을 보내신 것은 한편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그의 현존을 보증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서 역사하는 그리스도 즉 그가 최고의 주가 되셨음을 확실히 입증한 사건이 된다.<sup>15)</sup> 그러므로 칼뱅에게서 승천 후에 그리스도는 최고의 주권자이며, 그의 모든 현존은 이제 성령론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성도는 연합한다. 칼뱅에게서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끈”이다.<sup>16)</sup>

개혁자는 그리스도의 현존의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태양과 그 광선의 비유를 사용한다.

모든 자연적 질서를 넘어서는 경탄할 만한 것인 그리스도와 그의 이 비밀스런 연합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비록 하늘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실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태양은 그 자리를 움직이지도 않고 그의 광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힘을 줄 수 있는 것과 같다.<sup>17)</sup>

승천 후에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은 육체적이지 않고 영적이었다. 왜냐하면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아직 전적으로 나타나시지 않았기 때문이

15) Calvin, *IRC* III, xxv. 3.

16) Calvin, *IRC* III, i. 1.

17) Calvin, *Sermon 20<sup>e</sup> sur l'épître aux Ephésiens*, CO 51, col. 491.

다. 이런 이유에서 하늘에서 혹은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은 그의 재림 때까지 육체적이다.

지상과 천상에서 그리스도의 현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현존 - 영적  
 천상에서 그리스도의 현존 - 육적

그리스도는 육체적 방식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현존한다. 바로 이것이 구속의 역사 안에서 땅과 하늘,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밀접한 상호 관계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의 차이와 분리가 나타나는 이유이다.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현존과 천상에서의 현존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현존과 부재, 연합과 분리 사이의 긴장이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내재성의 중심에 “신적 초월성”을, 하나님의 근접성의 심장에 “거리두기”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은 언제나 “부재적 현존”(la présence absente)이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부재한다*고(*comme étant absent*) 말할 수 있는 하나님(그리스도)을 바라보는 것이다.<sup>18)</sup>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더 큰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현존하신다. 곧 그들 안에 살고 계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정말로 그들 속에 거하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부재하신다*(*il est absent de nous*).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얼굴과 얼굴로 나타나시지 않았기 때문이며 우리가 아직 그의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망명객으로서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사들이 향유하는 저 복된 불멸성을 아직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9)</sup>

18) Calvin, *Le Commentaire sur la première épître aux Corinthiens* 14,12

19) Calvin, *Le Commentaire sur la deuxième épître aux Corinthiens* 5,6.

그림자와 상징의 그리스도 - 상징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 승천과 좌정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현존적 부재) (현존의 제한) (그리스도의 부재적 현존)

지상에서 그리스도(하나님)의 현존은 언제나 부재적 방식으로 나타난다. 현존의 중심에 부재성이 계시된다.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 부재성의 경험이나 나타나는 것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먼 거리”(une longue distance)가 존재하기 때문이다.<sup>20)</sup> 하지만 부재성의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인간 몸 자체에 기인한다. 칼뱅은 인간의 몸을 “감옥”(prison)이라고 자주 언급하였다.<sup>21)</sup> 칼뱅이 몸을 감옥이라고 불렀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살과 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므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완전한 상태로 회복하려면 우리 본성에 있어서 찢어질 것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의 몸이 우리가 포로로 갇혀 있는 감옥으로 불려진다.”<sup>22)</sup> 즉 우리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몸은 찢어질 것으로서 즉 감옥으로서 인식되었다. 부재성이 나타나는 첫 번째 이유가 신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인간적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결정적 도래”를,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몸의 전적인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기다림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 부재성의 존재 이유와 기다림의 이중적 근거  
 신학적 이유 - 그리스도가 위로 떠나가심(거리) - 결정적 도래를 기다림  
 인간학적 이유 - 인간 몸의 부패성 - 몸의 전적인 회복을 기다림

마지막까지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현존과 부재 사이의 긴장

20) Calvin, *Sermon 17<sup>e</sup> sur la première épître aux Corinthiens*, CO 49, col. 801.

21) Calvin, *IRC* III, ii. 19; III. iii. 20; III. vi. 5; III. ix. 4; III. xxv. 1.

22) Calvin, *Le Commentaire sur la deuxième épître aux Corinthiens* 5,4.

은 인간으로서 하여금 그의 궁극적 상태를 지향하게 했다. 그러므로 신자의 전적인 구원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마지막 날로 유보되며 그 때까지 숨겨져 있다. 그리스도의 부재성 때문에 신자들은 이 땅에서 “진정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칼뱅은 주장했다.<sup>23)</sup> 우리의 행복이 지상에서 누리는 외적 유익들 즉 즐겁고, 평화로운 삶, 많은 재물의 소유, 모든 손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것, 육신이 일반적으로 사모하는 풍성한 오락 등에 있는 것이 아님을 칼뱅은 강조한다. 왜냐하면 이 행복은 근본적으로 천상의 삶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sup>24)</sup> “우리의 완전한 행복은 지상에 있지 않다.”<sup>25)</sup> 단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우리의 행복은 궁극의 날에 갖게 될 행복을 “미리 맛봄”(avant-gout)이다.<sup>26)</sup>

23) Calvin, *Le Commentaire sur la deuxième épître aux Corinthiens* 5,4.

24) Calvin, *IRC* II, xv, 4.

25) Calvin, *Le Catéchisme de Genève*, CO 6, col. 43.

26) “Car iceluy regne spirituel commence desia sur da terre en nous quelque goust du royaume celeste, et en ceste vie mortelle et transitoire quelque goust de la beatitude immortelle et incorruptible.” *IRC* IV, xx, 2. “notre Seigneur reserve à ses fidèles en l’autre vie la plenitude de sa grace, il lui suffit bien qu’ici ils en ayent quelque goust: comme aussi il ne leur seroit pas utile d’estre pleinement rassasiez en ce monde de ses biens.” CO 34, col. 332. “Or il y a encores plus, que Dieu nous veut exercer ci bas en l’espérance de la vie celeste, qu’il nous en donne quelque goust, il nous y appelle, il veut estre servi et honoré de nous, afin que nous cognoissions que nous sommes siens, et qu’il nous a receus pour estre de sa maison, et de sa famille.” CO 33, col. 144. “Or il ne faut point que nous pensions de la vie humaine simplement en soy: mais il faut regarder la fin où elle tend, c’est assavoir que nous soyons conduis à ceste espérance qui nous est encores cachée au ciel: combien que Dieu nous en donne icy quelque goust, voire entant que selon nostre rudesse nous le pouvons comprendre.” CO 33, col. 509. “Or il y a d’autres secrets qui nous sont cachez, et ausquels Dieu ne nous permet point de venir encores. Il est vrai qu’au dernier iour toutes choses nous seront cognues: mais maintenant il nous doit souvenir de ce que dit saint Paul (1. Cor. 13, 9), c’est assavoir, Que nous cognoissons en partie, voire en obscurité: que Dieu nous donne maintenant quelque goust de ce qui nous sera révélé en perfection, quand nous serons transfigurez pleinement en son image et en sa gloire, Estans donc vestus de nostre chair mortelle, cognoissons nostre petite capacité, et contentons-nous de ce qu’il plaist à Dieu nous donner et reveler. Il y a donc des secrets de Dieu, lesquels il nous veut tenir cachez durant ceste vie mortelle, comme nous ne pouvons

## 2.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붙들게 하는 “소망”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거리가 존재할지라도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은 부정되지 않으며 구속의 현재적 경륜 안에서 이 현존은 완전하다. 즉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은 “진정으로 참되고 확실하고 효과적”이다. 하지만 그의 현존이 계속되더라도 이것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가운데서 지속된다. 그러므로 신자는 약속된 생명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sup>27)</sup> 신자의 현재적 생명은 언제나 소망 가운데(sous l’espérance)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된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로 나타나실 때까지 유보된다. 그래서 칼뱅은 “우리의 소망은 여기 이 세상을 넘어서야 한다”(il faut que notre esperance outre-passe ce monde icy)고 강조했다.<sup>28)</sup>

칼뱅에 의하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토대이다. “실로 우리의 구원은 아직도 소망 중에 가리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복된 불멸과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sup>29)</sup> 성도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가시적 현현과 함께 있을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질 수 있고 지킬 수 있다. 그리스도의 부재적 현존은 소망을 통해서 마지막 날까지 계속된다. 『빌립보서 주석』에서 칼뱅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point savoir ce qu’il a disposé de faire de cestuy-ci, ou de cestuy-la.” CO 33, col. 534-5.

27) Calvin, *Le Commentaire sur la première épître de Jean* 3,2.

28) Calvin, *sermon sur Jérémie* 15, 17-19, *Supplementa calviniana*, Tome VI, 46, cité par Olivier Fatio, « Remarques sur le temps et l’éternité chez Calvin », dans Jean-Louis Leuba (dir.), *Temps et eschatologie: données bibliques et problématiques contemporaines*, (Paris, Cerf, 1994), 166.

29) Calvin, *Le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Ephésiens* 2, 6.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처럼 이 현재의 생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단지 소망 안에서만(en esperance) 이 현존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육적) 감각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것이다.<sup>30)</sup>

『기독교강요』에서 또한 칼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참되고 순수한 모든 영적 은사들을 풍성하게 나타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썩어질 육신을 벗어 버리고 우리를 앞서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될 때까지 이 풍성한 영적 은사들을 향유하는 것은 언제나 소망의 보호 아래 숨겨져 있다.”<sup>31)</sup>

구속의 전적인 성취를 기다리고 바라는 신자들은 궁극적 목적에 이를 때까지 항상 도상 가운데 서 있다. 마지막까지 육체적 부재가 계속될 거리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부재적 현존은 칼뱅 사상을 분명하게 특징짓는다. 즉 개신교의 종말론인 “현 시대”와 “오는 시대”, “이미 여기”와 “아직 아니”의 변증법이 강하게 칼뱅에게서 나타난다. 그래서 안드레 비엘레(A. Biéler)는 중생한 기독교인의 성격을 “양면성”(ambiguïté)으로 지칭했다.<sup>32)</sup> 칼뱅은 주장한다. “비록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옮겨짐은 소망 안에 있다. 복된 생명을 향유하는 것과 관계해서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리 남아있다.”<sup>33)</sup>

### 3. 죽음 후의 영혼들의 상태

죽음은 지상의 성도의 실존의 상태인 “양면성”을 종결짓게 하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죽음 후에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죽음 후에 성도들의 영혼의

30) Calvin, *Le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Philippiens* 1, 24.

31) Calvin, *JRC* II, ix, 3.

32) André Biéler, *La pensée économique et sociale de Calvin* (Genève: Labor et Fides, 1959), 202.

33) Calvin, *Le Commentaire sur la deuxième épître de Pierre* 1,11.

상태는 어떠한가? 루터는 죽음 후의 영혼의 상태를 꿈꾸지 않고, 의식 없는 깊은 잠으로 표상했다.<sup>34)</sup> 반면 영혼의 수면 교리를 반대했던 칼뱅은 영혼들은 깨어있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두메르그(E. Doumergue)는 말한다. “몸은 소멸되고 잠자고, 부활을 준비하지만, 영혼은 잠자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불멸한다.”<sup>35)</sup> 즉 칼뱅은 “영혼 불멸성”(immortalité de l'âme)을 주장했다. “우리는 그가(바울) 자신의 죽음을 묘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떠남(départ)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죽을 때 전적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님을 뜻했다. 왜냐하면 영혼은 단지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란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정의에는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증거가 담겨 있다.”<sup>36)</sup> 칼뱅은 그의 영혼 불멸성의 교리가 철학 사상에 의존하지 않고 원천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의존해 있기에 이교도의 것들과는 확실한 차이가 나타남을 그 스스로 의식했다.<sup>37)</sup> 칼뱅은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란 죽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지금 우리는 교제(communion)를 지키고 지속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신앙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들은 그와 함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또한 그와 함께 생명의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이다.<sup>38)</sup>

34) A. Gounelle, *Après la mort qu'y a-t-il ? Les discours chrétiens sur l'au-delà* (Paris: Cerf, 1990), 102.

35) Emile Doumergue, *Jean Calvin: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Vol. 4, *La pensée religieuse de Calvin* (Lausanne, Bridel & Cie, 1910), 343.

36) Calvin, *Le Commentaire sur la deuxième à Timothée* 1,9. 칼뱅은 『영혼 수면론 논박』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바로 이 영혼이 육체의 죽음 후에도 지각과 지성을 간직한 채,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다... 영혼들이 죽음 후에도 존재와 삶을 갖는다고 명백히 증거한다.” 칼뱅, 『영혼 수면론 논박』, 박건택 편역, 『칼뱅작품선집』 I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9), 57-8.

37) Calvin, *Le Commentaire sur la deuxième épître aux Corinthiens* 5, 1.

38) Calvin, *Le Commentaire sur la première épître aux Thessaloniens* 4,14.

이 감옥을 떠나길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이다... 몸과 분리된 이후로 신자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의 왕국의 복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sup>39)</sup>

두 인용문은 죽음 후에 영혼들의 상태를 그리스도(하나님)와의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즉 죽음이 오기 전에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 후 조차도 신자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결코 중단하지 않는다. 몰트만은 그의 작품 『오시는 하나님』에서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를 논한다. 연옥의 문제와 영혼 수면설, 그리고 죽음 속에서의 부활을 다룬 후에 그는 죽은 자들이 함께하게 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강조했다. “죽은 사람들은 죽었으며 아직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와 함께 그의 미래를 향한 길 위에 있다...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잠자는 것도 아니며, 이미 부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sup>40)</sup>

죽음 후의 상태와 관계해서 칼뱅과 몰트만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칼뱅은 영혼의 불멸에 대한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그의 논증을 이끌었다. “몸은 여전히 죽는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죄의 죽음으로부터 깨어났고, 심판과 은혜에 의하여 새롭게 태어난 영혼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그러나 사망시에 몸으로부터 격리된 영혼은 복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 복된 하늘나라에서 영혼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다.”<sup>41)</sup>

그리스도는 낙원(죽음 후에 신자의 영혼이 있을 곳)에서 영혼들을 영접하며 그들에게 현존하실 것이다. 그로 인해 영혼들은 쉼을 누리고 인락의 상태

로 들어간다.<sup>42)</sup> 하늘 생명의 완전한 영광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벽하게 실현될 때까지 그곳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쉼을 누린다.<sup>43)</sup> 따라서 중간 상태 안에서 영혼의 “지복”(félicité)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잠정적인 것으로 주어진다. 영혼들은 그리스도와의 천상의 교제와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택함받은 영혼들의 축복받은 무리들 속에서 교제를 누리면서 참다운 완성(consommation)을 기다린다. “신실한 영혼들은 죽음 후에 즉시 그들에게 약속된 유산을 어느 정도 향유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이 아직 그것의 위상 가운데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들은 이것이 행해지는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sup>44)</sup> 무엇보다도 영혼들은 거기에서 그들의 몸의 부활을 고대하며 기다린다.

#### 4. 부활의 방식

칼뱅에게서 그리스도의 승천이 종말론적 성취의 출발점이라면, 그의 재림은 그것의 종결이다.<sup>45)</sup>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와 그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가 주실 지복과 영광의 동참자로 성도를 만들기 위해 이 땅 위에 다시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왕국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는 경건한 자들을 모두 불러 그와의 충만한 교제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sup>46)</sup>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씌우실 것이다. 즉 면류관이란 영광의 상태로 그들을 옷입히시는 것을 말한다. 영예와 찬양을 돌려 마땅한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 때에 성도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성도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된다.<sup>47)</sup>

42) Calvin, *IRC* III, xxv, 6.

43) Calvin, *Le Commentaire sur l'Évangile de Luc* 23,43.

44) Calvin, *Contre les Anabaptistes*, CO 7, col. 125.

45) Birmelé, ‘L'Eschatologie. Les choses dernières et avant-dernières’, 385.

46) Calvin, *Le Commentaire sur la deuxième épître aux Thessaloniens* 1,10.

39) Calvin, *Contre les Anabaptistes*, CO 7, col. 223.

40) 위르겐 몰트만, 『오시는 하나님 -기독교적 종말론』, 김규진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196.

41) 퀴스토르프, 『칼빈의 종말론』, 104.

칼뱅의 관점에서 부활하게 될 인간 몸은 최초의 인간, 즉 아담의 “순전성”(intégrité) 보다 더 나은 상태이다. 인간의 본성은 “더 나은 상태”(en meilleur état)로 회복될 것이다.<sup>47)</sup> 더 나은 상태란 “최상의 완벽한 지복”(la souveraine et parfaite béatitude)을 뜻한다.<sup>48)</sup> 최상의 완벽한 지복의 상태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성도들은 몸의 부패성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런 불멸의 옷”(la robe glorieuse d'immortalité)을 입는다. 그는 이 영광스런 불멸의 옷을 입는 것을 『에베소서 설교』에서 “천상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nous serons reformez en la gloire celeste)으로 설교했다.<sup>49)</sup> 몸의 부활과 함께 입게 될 옷은 불멸성의 옷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안에 있었던 부패될 성질의 것이 소멸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sup>51)</sup> “이 죽을 몸에서 벗어난 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숨겨져 있는 불멸이 거기에 있다.”<sup>52)</sup>

부활의 방식에 대해 말하기 위해 칼뱅은 인간 몸의 “본체”(substance)와 “성질”(qualité)을 구별한다. 몸의 본체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동일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지만, 그것의 성질에 있어서는 다르다.<sup>53)</sup> 칼뱅은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구절<sup>54)</sup>은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동일한 몸(육체)(cette même chaire)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증한다. 사도 바울은 마치 의복을 입는 것처럼, 몸이 새로운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여겼다.”<sup>55)</sup> 그의 『제네바 요리문답』(Le Catéchisme de Genève)

47) Calvin, *Sermon du dernier advenement de nostre Seigneur Jesus Christ*, CO 52, col. 234.

48) Calvin, *Le Commentaire sur la première épître aux Corinthiens* 15,45

49) Calvin, *Le Commentaire sur la deuxième épître aux Corinthiens* 5,1

50) Calvin, *Sermon 8<sup>e</sup> sur l'épître aux Ephésiens*, CO 51, col. 340.

51) Calvin, *Le Commentaire sur la deuxième épître aux Corinthiens* 5, 3-4, Sermon 2e sur le Deutéronome, CO 25, col. 621.

52) Calvin, *Sermon 2<sup>e</sup> sur le Deutéronome*, CO 25, col. 621.

53) Calvin, *IRC* III, xxv, 8.

54) 이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를 말한다.

에서도 이런 사상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전에 죽게 될 사람들은 그들의 몸을 다시 얻게 될 것인데, 이것은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될 것이다. 비록 이 몸이 지금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긴 하지만, 죽음과 부패에 더 이상 예속되지 않을 것이다.”<sup>56)</sup>

우리 몸이 동일한 본체로 부활 할 것이라는 것은 몸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자신의 몸과 함께 행해져야 하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드러낸다. 즉 동일한 몸의 본체로서 있을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이 몸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교의 윤리를 말해준다. 그리스도 그 자신이 하늘 영광의 소유로 들어가기 위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의 영광과 복된 불멸성에 우리도 이 몸과 함께 언젠가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드려야 한다(롬12장1-2절). 그리스도와 가지는 신비적 연합은 단지 영혼에 속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몸에도 속하는 것이기에,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며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첫째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나타나야 하며, 둘째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하며, 셋째 우리 몸 안에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영원한 복락을 목상하는 부활의 현재적 의미이다. 칼뱅의 종말론은 이 점에서 윤리가 아니며 윤리와 동일시 될 수 없지만 오히려 종말론은 윤리를 가능케 한다. 게다가 그것을 분명하게 요구한다. 종말론은 인간과 그의 사역을 무력화하고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을 자극한다.<sup>57)</sup> 하늘까지 도달하기 위한 길, 그의 발걸음으로서 칼뱅의 종말론은 몸과 함께 하는 현재적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성도의 현재적 삶과 직접적으로 연

55) Calvin, *Le Commentaire sur la première épître aux Corinthiens* 15,53.

56) Calvin, *Le Catéchisme de Genève*, CO 6, col. 43.

57) J.H. Van Wyk, “John Calvin on the kingdom of God and eschatology”, *In Die Skriflig* 35, 191-6.



결된다. 칼뱅은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과 인내의 지탱은 현재의 삶의 상태에서 떠나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마지막 날을 목표로 해서 세워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날까지 세상의 방해물과 장애물을 해치고 전진하는 것이다.”<sup>58)</sup>

부활한 후에 있을 우리 몸의 성질은 현재 우리 몸의 성질과 동일하지 않다. 바울은 지상에서의 몸을 “육의 몸”(corps sensuel)이라 불렀다. “영혼에 의해 지배되고 생명력을 얻는 육의 몸”은 연약한 몸으로서 부패하며 썩어질 몸이다. 또한 이 육의 몸은 여러 도움들을 필요로 한다. 물과 음식과 의복을 필요로 하며, 잠과 휴식을 필요로 한다. 반면 “성령에 의해 생명력을 얻는 신령한 몸”(corps spirituel)은 새로운 성질을 부여받아 몸의 부패성은 사라지며, 몸의 여러 도움들 역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sup>59)</sup> 『기독교강요』에서 칼뱅은 몸의 새로운 성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 몸의 본체는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보다 고귀한 조건을 가져오는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부활하기 위해서 썩어지는 몸이 멸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패성을 벗어버려 썩지 아니하는 상태를 받게 될 것이다.”<sup>60)</sup>

“에베소서 설교”에서도 칼뱅은 이런 사실을 설교한다. “우리는 본성에서 변화가 되어서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 부패성에서 벗겨져 하늘의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다.”<sup>61)</sup>

부활한 몸의 상태는 어떤 상태로 있는가? 천국에 가면 어떤 성도는 타워펠리스와 같은 곳에서 어떤 성도는 초가집과 같은 허름한 곳에서 산다는 말이 전해지기도 한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곳인가? 아니면 성도들 각자 각자가 살아 온 삶의 모습에 따라 그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곳인가?

58) Calvin, *Le Commentaire sur l'Évangile de Jean* 6,39.

59) Calvin, *Le Commentaire sur la première épître aux Corinthiens* 15,44.

60) Calvin, *IRC III*, xxv, 8.

61) Calvin, *Sermon 8<sup>e</sup> sur l'épître aux Ephésiens*, CO 51, col. 340.

부활한 몸의 상태 즉 신령한 몸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칼뱅은 “지복”(félicité)과 “영광”(gloire)이라는 두 개념을 구별해서 사용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락”(지복)을 몸의 부활의 목적으로 생각했다.<sup>62)</sup> 지복이란 지극히 복된 상태로서 현재에서 우리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이 복된 상태는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공통적으로 주어진다. 왜냐하면 지복의 유일한 조건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양자의 은혜 혹은 선택의 은혜에 근거하기 때문이다.<sup>63)</sup>

지복은 우선 영생이다.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 점에서 부활할 몸은 불멸성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지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구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상에서 겪게 되는 죄와 죽음과 비참과 눈물과 고통, 이 모든 것들에서부터 완벽한, 완전한 해방이다. 칼뱅은 이 지복의 상태를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되는 것이며, 성도들의 조건은 더 이상 육적 변화를 겪지 않아도 되며 거기에 예속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설명했다.<sup>64)</sup> “이 지복은 생명과 빛 그리고 의에 있어서 참되고도 온전한 완성의 극치가 될 것이다.”<sup>65)</sup>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지는 결코 초라하지 않다. 초라할 수 없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상태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이다.

부활의 몸의 상태와 관계해서 “지복”은 똑같이 주어지지만 “영광”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게 주어진다. 『에베소서 설교』에서 칼뱅은 “각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의 정도와 분량(degré et mesure)에 따라 참여할 것이다”라고 설교한다.<sup>66)</sup> 다니엘 설교에서도 칼뱅은 다음과 같이

62) Calvin, *IRC III*, xxv, 10.

63) “우리는 영원한 복락(la béatitude éternelle)을 행위에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양자의 은혜에 돌린다.” Calvin, *IRC III*, xviii, 2.

64) Calvin, *Le Commentaire sur la première épître aux Corinthiens* 15,24.

65) Calvin, *Instruction et confession de foy dont on use en l'Eglise de Genève*, CO 22, col. 58.

66) Calvin, *Sermon 8<sup>e</sup> sur l'épître aux Ephésiens*, CO 51, col. 340.

주장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성도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천상의 영광이 시작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들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는 앞에서 걷게 하실 것이며, 또 어떤 이는 뒤에서 걷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은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보다 완전하고 거룩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 땅에서 신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것과 같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 자들은 특별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sup>67)</sup> 『기독교강요』에서도 그는 마찬가지로 강조한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은사들을 다양한 종류로 나눠 주시는 하나님은 동등하지 않게 그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은사들로 면류관을 씌워 주실 하늘에서의 영광의 정도는 동등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하면, 성경은 성도들에게 영생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이 영생 안에서 각 개인에게 특별한 상급을 약속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sup>68)</sup>

성도는 부활 후에 각자의 “영예”와 “영광”을 가질 것이다. 해와 별의 영광이 다르듯 그곳에서 영광의 다양한 정도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영광의 다양성은 성도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다.<sup>69)</sup> 하지만 이 보상 혹은 샅은

67) Calvin, *Sermon sur Dan*, 12,2-4, CO 42, col. 142, Wendel, Calvin, *Sources et évolution de sa pensée religieuse*, 220에서 재인용.

68) Calvin, *IRC III*, xxv, 10.

69)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후5장 10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건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임이라”. (고전 15장 58절)

결코 성도의 행위를 “업적”이나 “공로”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결과일 따름이다. 우리의 “상급”이 의존하고 있어야 하는 그곳은 칭의가 마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자비로우신 용납으로 수용해 주시는 그곳이다.<sup>70)</sup> 성도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그분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에 중생한 성도에게서 선행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지만, 구원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될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상급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칼뱅 역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부패되고 무너져 가는 몸이다.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몸과 같이 될 것이다”고 성경을 따라서 주장한다.<sup>71)</sup> 에베소서 1장 21절 설교에서 칼뱅은 이렇게 설교했다. “우리는 하나님과 유사하게 될 것이며 그의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다.”

성도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부활 후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혹은 하나님과 모든 것에서 동등하게 되는 것인가? 칼뱅의 관점에서 몸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몸을 닮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또한 하늘의 본성 안에서 그리스도와 유사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우리 새로움의 완성이 될 것이다.”<sup>72)</sup>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sup>73)</sup>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사함을 가지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신성화는 아니다. 따라서 부활 후에도 그리스도와 성도

70) Calvin, *Le Commentaire sur la deuxième épître aux Corinthiens* 5,10.

71) Calvin, *Confession de Foy*, CO 9, col. 770.

72) Calvin, *Le Commentaire sur la première épître aux Corinthiens* 15,49.

73) Calvin, *Le Commentaire sur la première épître aux Corinthiens* 15,51.

들 사이에 어떤 구별은 그래도 역시 존재한다.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sup>74)</sup>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한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때조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과할 수 없는 거리(longue distance de proportion)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sup>75)</sup>

퀴스토르프는 이 점에서 대해서 올바르게 평가했다. "영원한 나라에서도 우리들은 신성 속에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비전의 완전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살아 있는 응답으로 남게 될 것이다."<sup>76)</sup>

### 5. 그리스도를 통한 간접적 통치에서 아버지의 직접적 통치로

그리스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왕국은 그의 인성(humanité) 안에서 존속할 것이다. 칼뱅에게서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최종적 행동"(le dernier acte du règne de Jésus Christ)<sup>77)</sup>이다. 최후 심판 후에 그리스도는 그에게 주어졌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것이며 이로 인해 성도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결합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왕국을 아버지께 바친다는 것은 그의 왕국의 통치를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이 그의 인성에서 그의 영광스러운 신성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완성되는 것을 뜻한다.<sup>78)</sup> 아버지께 나라를 돌려드리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신적 위엄이 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치권은 더욱더 빛나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신성이 지금은 아직 수건, 말하자면 그의 인성에 가려져 있지만, 그 때에는 신성이

74) Calvin, *IRC* III, xxv, 3.

75) Calvin, *Le Commentaire sur la première épître de Jean* 3,2.

76) 퀴스토르프, 『칼빈의 종말론』, 243.

77) Calvin, *IRC* II, xv, 5.

78) Calvin, *Le Commentaire sur la première épître aux Corinthiens* 15,27.

스스로 충만하게 빛을 발할 것이기 때문이다.<sup>79)</sup>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를 바칠 때 이로 인해 모든 증보는 끝이 날 것이다. "그 때에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끝날 것이며, 교회에서 사역들과 다른 직무들의 권한 행사도 끝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천사의 손을 통하지 않고 다만 그 자신에 의해서 능력과 권위를 행사할 것이다."<sup>80)</sup> 이 점에서 그리스도의 증보자의 인격으로서의 기능은 완성되고 끝나쳐 질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증보자로서의 인격은 칼케돈 양식에 따르는 영원한 성자의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 경륜 안에서 계시된 말씀의 인격 즉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sup>81)</sup>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실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를 보호하고 구원으로 이끌도록 그에게 맡겨졌던 의무들을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실행하고 완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sup>82)</sup>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는 천상의 영광 가운데 있었다. 그리스도가 그의 증보자의 직무를 떠나면서 그는 하늘의 영광으로 다시 들어가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 후 하나님을 그 자체로 보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는 증보자의 직분을 완수하셨으므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대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창세 전에 누렸던 그 영광으로 만족하실 것이다."<sup>83)</sup>

증보직이 끝난다는 것은 더 이상 변화에 예측되지 않는 신성한 몸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이 직무는 우리의 현재적 연약함 때문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주어졌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 직무는 구원의 현재적 경륜 안에서만 요구된다. 에먼(E. Emmen)은 말한다.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79) Calvin, *IRC* II, xiv, 3.

80) Calvin, *Le Commentaire sur la première épître aux Corinthiens* 15, 24.

81) Richard A. Muller, "Christ in the Eschaton: Calvin and Moltmann on the Duration of the Munus Regium", *Harvard Theological Review* 74 (1981), 33.

82) Calvin, *IRC* II, xv, 5.

83) Calvin, *IRC* II, xiv, 3.

꼭 필요로 하였던 (신-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명이 완성된다.”<sup>84)</sup> 따라서 성도는 그의 작음과 연합함 때문에 구원의 현재적 경륜 안에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접적 방식으로” 하나님과 연합한다. 칼뱅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연합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 안에서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연합임을 언급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결합의 유일한 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에 있다.<sup>85)</sup>

그리스도는 그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결합 할 수 있는 우리 연합의 유일한 끈이 되어야 한다.<sup>86)</sup>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떠한 사임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sup>87)</sup>

그리스도가 그의 직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통치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것이다. 직접적으로 마주 보게 될 것이다. 리차드 뮐러는 쓴다. “하나님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치하시는 반면에 심판 후에 그는 직접적으로 통치하실 것이다.”<sup>88)</sup>

하나님의 대리로서 모든 중보가 구원의 현재적 경륜 안에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완성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모든 중보는 우리의 연합함으로 인하여 필요로 했던 것이지만, 완성 후에는 하나님의 위엄에 접근하는 길이 전적으로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84) E. Emmen, *De Christologie van Calijn*, 1937, 109, 퀴스토르프, 『칼빈의 종말론』, 239에서 재인용.

85) Calvin, *Le Commentaire sur l'Évangile de Jean* 16, 27.

86) Calvin, *Sermon 26<sup>e</sup> sur l'Harmonie Évangélique*, CO 46, col. 294.

87) Calvin, *Sermon 23<sup>e</sup> sur l'épître aux Galates*, CO 50, col. 560.

88) Muller, *Christ in the Eschaton: Calvin and Moltmann on the Duration of the Munus Regium*, 33.

그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과 땅을 다스릴 것이며, 또 어떠한 중보 없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실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피조물 안에도 계시실 것이다... 그의 왕국을 중보를 통해서 시작했던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며, 결과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과 전적으로 연합될 것이다.<sup>89)</sup>

성도의 영광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베일로서 하나님의 위엄을 관상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그 중보직을 완수하면서 우리의 연합성 때문에 가려져 있던 베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제거되어,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관상하는 것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성의 베일은 벗겨졌는가? 칼뱅이 『에베소서 설교』에서 간략하게 이 내용을 언급한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너무도 영광스럽게 되어 그는 참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하나님이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것이 희미하게 알려져 있지만, 그 때에는 완전하게 알려질 것이다.”<sup>90)</sup>

즉 그의 인성이 이제 너무도 영화롭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계시기에 그의 인성은 베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 나라, 이 나라에 대한 아버지의 직접적 통치는 사실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로서 파악된다.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직위가 완성되고 끝났더라도,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통치는 삼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또한 영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6. 신비적 연합(Unio mystica)

몸의 무부패성과 불멸성의 상태 안에서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과 교제를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신비적 연합(unio mystica)이라

89) Calvin, *Le Commentaire sur la première épître aux Corinthiens* 15, 28.

90) Calvin, *Sermon 8<sup>e</sup> sur l'épître aux Ephésiens*, CO 51, col. 340.

부를 수 있다. 칼뱅에게서 이 신비적 연합은 “하나님의 봄”과 “하나님의 향유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하나님의 봄(Visio Dei)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린다면, 그가 우리에게 거울처럼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인간 감각을 통해서 파악될 수 없는 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분”(invisible)이시다.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셨으며 그 안에서 “보이는 분”(visible)으로 계시되었다.<sup>91)</sup> 이런 이유에서 칼뱅은 성도 안에서 중생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중생의 선물이 그에게 주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간접적 방식으로 보는 것이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눈”, 즉 “신앙의 눈으로”(par l'œil de la foi) 하나님을 바라본다.<sup>92)</sup>

이 “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상태로 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신과 그의 왕국의 신비를 선명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는 것 역시 유보된다. 종말론적 경륜 안에서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보게 된다.<sup>93)</sup> 따라서 칼뱅은 이렇게 말한다. “아직 그렇게 높이 위로 올라가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성례전 안에서, 궁극적으로 모든 교회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대로 그를 바라보게 된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희미하게 본다고 말하는 것은 보는 것이 의심스럽다거나 혹은 거짓으로 보는 것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날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보는 것이*

91) Calvin, *Le Commentaire sur la deuxième épître aux Corinthiens* 4,4.

92) Gabriel Widmer, « La contemplation et les œuvres dans la tradition réformée », *Lumière et vie* 207 (1992), 59.

93) Jean Boisset, *Sagesse et Sainteté dans la Pensée de Jean Calvin*, Paris, P.U.F, 1959, 273-4.

*아니기 때문이다.*”<sup>94)</sup>

우선 성도들은 죽음 후에 말하자면 중간 상태에서는 보다 가까워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sup>9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상태에서 영혼의 “하나님의 봄”은 완성된 봄은 아니다. 완성된 봄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연기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참 거울이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그를 “눈으로”(à l'œil) 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마지막 날까지 이것은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 때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고유한 것으로서, 우리의 연약함과 거침이 허락하는 것으로서 변화되어 그를 닮아갈 목적으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복음 안에서 바라보고 있다.<sup>96)</sup>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 후에 “새로워진 눈”(yeux renouvelés)을 가지게 될 것이다.<sup>97)</sup> “우리는 우리의 현재적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를 보는 이 은택이 우리에게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새롭게 되어 그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sup>98)</sup> 하나님과의 궁극적 관계를 표상하기 위해서 칼뱅은 “시선”(vue), “봄”(vision), “보다”(voir)라는 용어를 사용했다.<sup>99)</sup>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후에, 성도들은 그 때에 “하나님을 그 자체로”(Dieu tel qu'il est) 보게 될 것이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그의 이미지로서가 아니라 그분 자체로 보게 될 것이다. 이 봄은 하나님과 성도의 “미주 봄”이다.<sup>100)</sup> 이 봄은 지금 허락되지도, 파악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본질을 보는 것이며 천상의 위엄

94) Calvin, *Le Commentaire sur la première épître aux Corinthiens* 13,12.

95) Calvin, *Le Commentaire sur la première épître aux Corinthiens* 13,12.

96) Calvin, *Sermon 28<sup>e</sup> sur l'épître aux Galates*, CO 50, col. 630.

97) Calvin, *Sermon 8<sup>e</sup> sur l'épître aux Ephésiens*, CO 51, col. 340.

98) Calvin, *Le Commentaire sur la première épître à Timothée* 6,16.

99) Vincent, *Exigence éthique et interprétation dans l'œuvre de Calvin*, 43.

100) Calvin, *Le Commentaire sur la première épître aux Corinthiens* 13, 12.

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본질이 아닌 그의 상징 아래서 보여졌다. 따라서 지금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엄은 이 없어질 부패하는 본성의 베일이 제거될 때에야 드러날 것이다.<sup>101)</sup>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바치게 될 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그의 본질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그 때에 지금 볼 수 없는 하늘의 위엄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sup>102)</sup>

영광의 상태 안에서 “하나님의 봄”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현재 우리가 가진 언어로는 전적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칼뱅에게서 하나님의 봄은 본질적으로 영적이다. 하나님을 영원히 보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완성을 뜻한다. 현재적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봄은 종말론적인 하나님과의 “마주 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시선(봄) 아래서 현재적 삶을 사는 것을 뜻한다. 구원이 인간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삶”(vivre sous le regard de Dieu)이다.<sup>103)</sup> 즉 하나님이 인간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 아래서 사는 것이 기독교 윤리이다.

칼뱅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과 관련된다. 하나님과의 전적인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봄”(vision de Dieu)은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함, “하나님의 향유”(jouissance de Dieu)로 연결된다. 그리스도

101) Calvin, *Le Commentaire sur la première épître de Jean* 3, 2.

102) Calvin, *Sermon 8<sup>e</sup> sur l'épître aux Ephésiens*, CO 51, col. 340.

103) Annick Vanderlinden, *Vivre sous le regard de Dieu. Une redécouverte théologique du regard*, Berlin/Münster, Lit, 2012, 145-201. “하나님은 인간을 살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즉 그분의 시선 아래(sous son regard) 우리는 항상 있다. 자신을 가장 할지라도, 사람들 속에 숨을지라도, 마음 중심까지 모든 것을 보시고, 분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위선들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CO 33, col. 367.

와의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보며, 그를 전체적으로 영원히 향유할 것이다.

## 2) 하나님의 향유(Jouissance de Dieu)

에베소서 1장 14절 주석에서 칼뱅은 구속의 충만함을 구속의 열매를 “향유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지복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순수하고 순전하게 향유하는 것이다. 그 때의 향유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외적 유익들을 즐기는 수준을 넘어선다.

그 때에 우리는 지금 숨겨져 있고 우리가 단지 부분적으로만 맛보는 그 열매를 전적으로 맛보게 될 것이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은사들을 완전하게 소유하게 될 것이다.<sup>104)</sup>

우리가 소망을 통해서 소유하고 있는 은사들을 충만하게 향유하게 될 것이다.<sup>105)</sup>

죽음 후의 영혼들의 상태를 말하면서 칼뱅은 그들이 약속된 은혜를 향유할 것을 기다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장 큰 경이로움은 단순하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유”(La Jouissance de Dieu lui-même)하는 것이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한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대답은 이것이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enjoy him forever).” 인생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향유하는 것에 있다고 이 소요리문답은 주장한다. 왜 그런가? 모든 피조물들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고 그와의 관계함을 즐거워할

104) Calvin, *Sermon 8<sup>e</sup> sur l'épître aux Ephésiens*, CO 51, col. 340.

105) *Lettre aux prisonniers de Lyon*, CO 14, col. 471, Fatio, 《Remarques sur le temps et l'éternité chez Calvin》, 172에서 재인용.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칼뱅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유하는 자가 되도록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지복은 하나님 그 자신을 전적으로 소유하며 향유하는 것에 있다.<sup>106)</sup> “하나님께서 마치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과 같이 그 자신 안에 모든 선한 것들의 충만함을 지니고 계신다면, 최고선과 모든 복된 요소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넘어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sup>107)</sup>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그의 영광과 능력과 의를 나눌 것이며, 게다가 그 자신이 충만한 기쁨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그들과 완벽한 연합이 성취될 것이다.<sup>108)</sup> 즉 하나님의 향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완벽한 연합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영혼수면론 논박이라는 그의 최초의 신학적 작품에서부터 이미 칼뱅은 완전성, 지복, 영광은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에 있다는 생각했다.<sup>109)</sup> 같은 생각이 그의 다른 작품들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는 유기된 자들의 운명을 언급하도록 하자. 유기된 자들의 운명은 지극히 복된 자들보다는 성경에서 훨씬 적게 언급된다. 이들의 형벌은 성경에서 육적인 것들의 비유 즉 어둠, 울음, 이를 감, 영원한 불, 심장을 갇아 먹는 죽지 않는 벌레 등을 통해 표현된다. 유기된 자들은 영벌에서 형벌을 겪게 되는 데 이 형벌 중의 가장 큰 형벌은 하나님의 현존이 없는 것에 있을 것이다. 영원한 구원이 하나님과 연합 안에서 완벽하게 되는 것처럼, 영원한 저주는 하나님의 현존이 전적으로 제거되는 것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교제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sup>110)</sup> 원하던 원하지 않든, 불신자들도 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반 은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이 완전히

106)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현존을 향유할 것이다. Calvin, *Le Commentaire sur l'Évangile de Matthieu* 5,8.

107) Calvin, *IRC* III, xxv, 10.

108) Calvin, *IRC* III, xxv, 10.

109) Wendel, *Calvin. Sources et évolution de sa pensée religieuse*, 218.

110) Calvin, *IRC* III, xxv, 12.

제거된 상태를 현 세상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다. 지옥은 바로 하나님의 현존과 그의 은혜가 전적으로 제거되는 곳일 것이다.

우리가 가지게 될 몸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될 것이다. 신비적 연합(*unio mystica*)은 하나님을 마주 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 하지만 현재 이 땅에서 정확히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는 없다. 칼뱅은 바로 이 영광의 상태에 대한 인간 인식의 한계를 분명하게 말한다.

이 복은 바라보기만 해도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알기만 해도 놀라운 감미로움을 맛보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행복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즐거움을 훨씬 능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sup>111)</sup>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명상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 나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을 이 비밀의 높이와 비교할 때 우리는 여전히 가장 낮은 밑바닥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자.<sup>112)</sup>

영원한 지복에 관한 우리의 현재적 지식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지나치게 철저히 탐구하는 것은 우리의 한도를 넘어서는 일이다.<sup>113)</sup> “이 실재들은 현재로서는 인간의 인식능력 밖에 있으며,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이를 바라볼 뿐이다.”<sup>114)</sup>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것 없이 사람들은 이미 상상으로 승리를 미리 꿈꾼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늘나라에 이를 것인지 우리의 관심을 쏟는 데 있다. “어떻게 하늘나라로 갈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자들은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사

111) Calvin, *IRC* III, xxv, 11.

112) Calvin, *IRC* III, xxv, 10.

113) Calvin, *Sermon 64<sup>e</sup> sur Harmonie Évangélique*, CO 46, col. 799.

114) Calvin, *Instruction et confession de foy dont on use en l'Eglise de Genève*, CO 22, col. 58.

람이 알고 싶어 한다.”<sup>115)</sup>

칼뱅의 종말론의 목적은 성도를 세워서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것인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안드레 구넬(A. Gounelle)은 종말에 관한 칼뱅의 언어는 교육적이며 실존적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죽음 후에 있을 것에 대한 진정 기독교적인 것은 영원한 삶으로 목표가 세워지고 방향지어진 현재적 실존에 사실상 관계된다.”<sup>116)</sup> 성도는 그의 마음과 정신을 부활과 불멸로 끌어올려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택의 열매를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 칼뱅의 종말론의 목적은 이 세상을 부정하고 허무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싸움에서 저항하고 승리하게 하는 데 있다.<sup>117)</sup>

## II. 결론

영광의 상태에 대한 칼뱅의 교리는 영광의 상태 자체로 존재하는 교리가 아니라, 은혜의 상태의 완성이요 그 위에 세워질 면류관이다. 영광의 상태의 교리는 은혜의 상태 안에 사는 성도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을 지배한다. 그것은 칼뱅에게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강조됐다. 은혜의 상태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서 그리스도의 현존은 진정으로 참되고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나타나지만 부재성을 그 특징으로 가진다. 성도는 그리스도가 위로 떠나가셨기 때문에 그의 결정적 도래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의 부패성 때문에 몸의 전적인 회복을 기다린다. 죽음 후에 성도는 죽음 전과 마찬가지로 낙원에 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함께 기다리며,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 그럼으로 그곳에서 누리는 지복은

115) Calvin, *IRC* III, xxxv. 11.

116) Gounelle, *Après la mort qu'y a-t-il ?* 108.

117) Calvin, *Sermon du dernier advenement de nostre Seigneur Iesus Christ*, CO 52, col. 225.

잠정적인 것이다.

몸의 본체는 그대로이고, 성질은 변화된다. 지복은 동일하며, 영광은 차이가 난다. 현재적 구속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하지만, 그 때에는 직접적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이 지복의 상태, 영광의 상태 안에서 말하자면 신비적 연합(*unio mystica*) 안에서 성도와 하나님은 서로 마주 보며, 성도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향유한다. 궁극적 최종적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신비적 연합은 “하나님의 봄”과 “하나님의 향유”에 있다. 기독교인의 현재적 삶은 영원한 복락을 열망하면서 사는 삶이다.